

대한민국, 미완(未完)의 나라 —21세기 지구촌 시대 정체성 세우기—

김진현

I. 1979.10.26 술집 황(黃)양의 분노

꼭 40년이 지났는데도 영 잊히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다. 딱 한번 극적으로 만나고 30여분의 대화로 그친 그리고 다시는 만날 기회 없이 수수께끼로 남은 여인. 요사이 김정은 환영행사를 준비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소식을 들을 적마다 더욱 40년의 세월을 스친 그 여인의 곡절을 꼭 알고 싶다. 이 나라, 이른바 건국 71년이 되도록 속앓이 하는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과 지키기, 그리고 국가와 민족간, 인간과 공동체 간의 갈등관계의 구체적, 그리고 극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쓰러진 날에서 닷새 전쯤 밤 12시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였다. 그날 밤 11시쯤 반포동 태극당 빵집에 앉자마자 윤곽은 분명하나 얼굴색이 파리한 가냘픈 이 어린 여성으로부터 “김일성이가 서울 와봤으면 좋겠다”는 외침을 들었다. 너무 극적인 선언이었다. 그날 밤 신당동에서 하얏트 호텔로 넘어가는 고개, 지금의 타워호텔 동쪽 언덕의 골목 안 술집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구본호 부원장의 초대로 경제학계 출신 유정희 국회의원 백영훈, 한기춘과 조선일보 김성두, 한국일보 김정태, 그리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던 내가 자리를 같이 했다. 경제문제 전문가였던 이 그룹은 비교적 자주 만났다. 일행이 앉고 아가씨들이 들어오는데, 내 파트너는 들어올 때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고 앉아서도 말 한마디 없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섬뜩한 기운마저 들었다. 원래 술이 약한 나로서는 아주 특별한 아이로구나 하는 판단이 바로 섰다. 그래서 술자리 시국 얘기에만 열중했다.

술이 파하고 나오는데, 이 아가씨가 내 팔을 꼭 잡았다. 놀랐다. 선생님과 꼭 이야기하고 싶다 했다. “그래 그러면 언제 날짜를 잡을까”하니, 아니 지금 하고 싶다 했다. 통행금지 시간이 되어 가는데 하니, 선생님 댁이 어디냐 했다. 바로

다리 건너 압구정동 살 때였다. 자기는 반포니 거기서 애기하고 가시면 될 거라 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반포동 태극당 빵집이었다.

이름은 황(黃) 아무개였는데, 성만 기억난다. 당시 서울의 H대학 유럽 어느 나라 언어학과(일부러 안 밝히겠다)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 동생이 대학에 가게 되어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술집에 나온 지 12일째였다. 그러니까 이 술집에 처음 나온 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국가기관장인 J를 모시게 되었다. 여기에 운명의 장난이 벌어졌다. 이 서툰 아가씨가 술을 따르려는 순간 J가 앞자리의 상대방을 향해 손을 번쩍 드는 바람에 술병이 옆질러져 J의 옷이 젖었다. 그러자 J는 다짜고짜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이다. 이 순진한 여대생은 순간적으로 왜 때리느냐고 대들었다. 그러자 J는 어디서 대드냐며 또 주먹질을 했다. 이어 술집 일꾼들이 들이닥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소리를 지르냐며 끌어내어 직사토록 때렸다. 그래서 열흘간 병원에 눕고 정말 죽고 싶었으나, 동생의 등록금을 선불로 받아서 할 수 없이 다시 나온 첫날의 손님이 나왔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김일성이 서울에 와봤으면 좋겠다' 였다. 잘난 놈, 권력 가진 사내놈, 이들로 짜인 국가 세상에 대한 분노가 짝 찼다. 너무 당황했고, 시간에 쫓겨서 당시 43살 우리 세대의 혼한 상투어를 쏟았다. 6·25 고난, 김일성 독재, 한국 독립운동의 줄거리, 그리고 남아메리카해방신학과 한국의 차이 등 지금 생각해도 황 양이 알아들을 리가 없는 소리였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꼭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들르마, 그때 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만들자 하고 12시 통행금지 시간에 쫓겨 귀가했다.

그리고 10·26, 신문사도 나도 바빴고, 그때 참석자들도 모두 흩어졌다. 술 자리는 다시 오지 않았다. 전두환 국가보위위원회의 등장과 함께 나 역시 쫓겨나서 8개월을 양산, 통도사 금강암 등지를 방황하게 되었다. 황 양은 어찌되었을까?

그 하늘을 찌르는 분노로 해서 10·26 이후 온몸을 던져 1980년 민주화의 봄에 나서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짧고 실패한 봄으로 해서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다시 지하의 운동권 '자생' 친북좌파 운동의 열렬 여성으로 직진 했을까. J에게 맞은 지 보름쯤 지나 10·26이 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을 텐데, 그 원한의 대상 J는 그 뒤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모 부처 장관까지 올랐다. 그래서 그 여한이 이어져 지금까지도 그 어느 극렬 좌파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죽고 싶어도 동생 학비 때문에 다시 술집으로 나온 그녀의 '가정' 사정으로 해서 술 따르는 여성으로 몇 년 더 있다가, 그 분노를 자기 계발로 승화시켜 문학이나 문인의 길로 갔는지. 수녀나 비구니가 되었는지.

아니면 술집에서 다치고 자생 친북좌파 운동권의 선두로 나서다 공권력에 다쳐 몸이 부실하게 되고 이승에서 사라졌는지. 살아있으면 61세 전후 환갑을 지냈을 텐데, 지금 대학생들의 '위대한 정치지도자 김정은 환영' 구호를 어찌 생각할까.

세월이 다시 10년이 흘러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구영 민정수석 비서관의 요청으로 청와대 전 직원에게 특강을 한 적이 있다. 나는 황 양의 경험을 자세히 들어 우리가 체제수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우리는 밤에 스트레스를 풀 특권이 있다고 함부로 놀다간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반체제, 자생적 반체제를 키우는 체제 가해자,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간곡히 한 적이 있다. 우든 좌든 이 나라의 성공자들, 스스로 나라 세우고 지키기 혁명에 큰 역할을 한 공로자라 자부하는 이들도 과연 그 판단이 끝내 완벽하게 옳은가. 오늘의 이 나라의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앞에 다시 웃음을 여미고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II. 전쟁 (1950.6.25)과 체제와 인간 — 간첩 일꾼과 윤종호 안성군 인민위원장

1950년 6·25 발발과 3일 뒤 서울철수, 다시 9월의 인천상륙작전과 10월의 압록강까지의 북진, 그리고 다시 다음해 1월 4일 서울철수. 1953년 7월 휴전까지의 전쟁 경험—여름 겨울 피난길의 혹독한 고생, 굶주림, 공포의 숨기, 생명상실, 가족이산, 재산파괴, 감정과 이념의 육체적 갈등—은 한국 근현대사의 최고의 나락지옥의 경험이었다. 우리 집안도 두 개의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다. 인간과 국가 체제의 심층경험이다.

하나는 안성군 이죽면 두교리 619번지 두되산골 할아버지의 충실한 머슴 이야기다. 할아버지의 집 일꾼은 정말 일을 잘했다. 네모 넓적한 얼굴, 키는 중키이나 우람한 체구, 힘도 세고 동막골에선 제일 넓은 농토를 가진 할아버지의 농사를 사실상 혼자 짓고 있었다. 6·25가 나서 제헌국회의원을 막 마친 아버지와 우리 형제, 시집간 누나 집의 식구까지 동막골의 집에서 비벼대고 있었다. 그리고 인민군이 남쪽에서 밀린다는 소문이 들릴 무렵 어느 저녁에 만 4년여 동안 할아버지를 돕던 일꾼이 꼭 어른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모여달라고 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왔다.

실은 자기는 동막골에 오기 전부터 북한과의 연락책이었고, 북한으로부터 오는 지령을 받아 남쪽으로 보내고 받는 역할이었다고 했다. 그간 꺾어보니 북에서 볼 때는 반동1호 집안이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집안 어른들이 선하고 인심이 후해서 이분들은 해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제 전선이 불

리해 자기한테도 동원령이 내려져서 내일 떠난다는 통고였다. 다음날 아침 늘 입던 바지저고리 대신 간편복 차림의 일꾼은 선물과 준비물 한 보따리를 메고 온 집안의 환송을 받으며 대문을 나섰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는 정치공작이나 선전활동의 간첩은 아니었다. 평양의 지령을 남한의 어딘가에 연결하는 지식이 필요 없는 고정 연락책이었다. 그 일꾼을 통해 이미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남한 전역을 상대로 하는 평양 공산당의 정치간첩과 연락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순진하고 무식한 북한의 연락책은 패전 막바지에 총알받이로까지 동원된 것이다. 그는 어느 전선에서 싸웠을까. 살아남았을까. 착한 일꾼의 비극적인 인생은 북한에서 마감했을까. 그러나 우리 집안에는 은인인 그의 성을 집안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아는 이는 모두 이승을 떠난) 세월에서 6·25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서울과 평양의 싸움의 실체와 그 속에서 인간의 착한, 그러나 슬픈 단면을 본다. 그야말로 경천동지 할 얘기였다. 지난 4년여간 북한 간첩이 집에 머물고, 북 입장에서는 부르주아요 반동1호 집안을 고발하지 않은 무식하나 소박한 일꾼의 인간성을 보게 된 이 특이하고 경이로운 동막골 시골 구석의 한 장면도 우리 김씨 집안 운명의 심층의 한 단면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축적의 밑알이다.

아버지의 죽산 국민학교 동창 중에 윤종호(尹鐘鎬) 씨가 있다(아버지 동창들은 1905년 무렵 출생이다). 안성에서 보기 드물게 일본 도쿄제국대학을 나오고 해방 후 일찍이 월북한 사회주의자였다. 그가 6·25 이후 안성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간첩 일꾼이 떠나고 동막골에서도 쿵쿵, 전선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8월말 무렵에 아버지는 갑자기 안성읍으로 소환되었다. 수감은 안 채웠지만 불길했다. 온 집안이 걱정이었다. 그런데 1주일쯤 뒤에 돌아오셨다. 사연인즉슨 꼭 꿈만 같았다.

하루는 (실은 딱 한 번뿐) 윤 위원장이 불렀다(얼마나 극적인 만남이었을까. 국민학교를 나온 이후 사회에선 길이 갈리고, 한쪽은 대한민국의 안성 제헌국회의원, 한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성 인민위원장으로 전쟁통에 만나는 장면이). 그는 놀랍게도 아주 낮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여기서 서울로 가게 돼있네. 서울가면 평양으로 가고 다시는 못 오네. 지금 형세가 우리한테 매우 불리하네. 그러니 내일부터 당장 속이 아프다고 굶게. 그러면 며칠 있다가 도저히 몸이 허약해서 서울로 보낼 수 없으니 집에서 몸을 다스리다 나으면 소집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할 테니 당장 굶게.” 동막골로 돌아온 아버지는 곧장 곰넝이 깊은 산속에 토굴을 파고 들어갔고, 몇 일에 한번씩 삼촌들이 먹거리를 밤중에 몰래 전달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미군탱크가 진천-

죽산길을 지나고, 아버지는 동막골로 귀환했다. 만일 그때 안성 인민위원장이 국 민학교 동창 윤종호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북으로 끌려가고, 오늘의 나도 없었 을 것이다. 한 많은 납북 제헌의원 유족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제헌위원 209명 가운데 납북되신 분은 약 59명이다. 지금은 생존자가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러나 6.25의 깊은 한이 납북 제헌의원 유족들에겐 절절이 남 아있다. 1950년대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특별히 부자 집안이 아니 고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의 아닌 납북도 억울한데, 아버지가 북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신원조회에 빨간 줄이 쳐지고, 여권도 못 얻어 해외 유학도 못하고,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에도 취직이 안 되었다. 반대로 이른바 친일 파로 보이는 이들의 자식들은 고등고시로 공무원이 되어 출세하고, 유학해서 박 사학위를 받고, 고관대작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진실이 어느 편이냐를 떠나 그런 감정이 강하다. 집안이 어려워진 납북 가족들은 대개 친정부적 친체제적이기가 어렵다. 특히 임시정부나 해외독립운동 제헌의원의 유가족 분들은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개인사적 억울함이랄까, 체제 한계의 국가적 불행이 두 가지 있다. 대한민국이 납북 제헌의원들에게 지고 있는 빚이다. 첫째는 이미 제헌의원의 유 족 2세들조차도 상당수가 세상을 떴고, 뜨고 있다. 납북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 의 하나는 죽기 전에 아버님의 돌아가신 날이라도 정확히 알아 제대로 제사 한번 지내보고 싶다는 것이다. 2000년에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 나는 제헌의원 유족 회장 자격으로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을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 사정을 전하고, 돌 아가신 분의 기일(忌日)만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임 원장의 첫말에 내가 놀랐다. '유족회에 돈이 있느냐?'였다. 내 개인돈으 로 일년에 한 두 번 식사하고 이사회를 여는 것이 고작이었던 시절이다. 북한에 는 돈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꼭 돈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국정원 의 돈으로 해줄 수 없느냐고 항변성 답변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북한 다루기 가 겉모습과는 달리 돈놀음이 된 것이다. 북한 통일 민족이라는 고상한 그리고 가슴 울리는 문제를 역대 대통령들이 사유(私有) 사용(私用)한 죄를 벗기 어렵다.

또 하나 납북유가족들의 한이 있다. 납북되지 않은 제헌의원들은 모두 '대 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다. 납북의원들은 빠졌다. 국정원 또는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은 이렇다. ① 납북과 자진 월북의 구분이 어렵다. 유족회는 59명 납북으로 알고 있으나, 국정원자료로는 납북 34명, 월북 11명, 행방불명 2명, 확인불가 3명 이다. ② 북한에서의 방송활동, 조직활동 (예,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1956년7월 주요 납북·월 북자들을 규합하여 대남위장 평화공세 및 모략활동을 위해 결성한 노동당 전위조직) 등의 실적 ③ 북

한에서의 조국 통일상, 노력 훈장 등의 수훈사실에서 근거하면, 건국훈장수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1948년의 5·10 제헌위원 선거, 8·15 건국 선언으로부터 71년이 지났다. 아직도 남북제헌의원들의 인간적·체제적 처리는 숙제로 남아있다. 인간적 여한들은 망각의 시간으로 넘긴다 치자. 남북 의원들에 건국훈장을 수여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북한에서의 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김일성 독재하의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 반(反)인권 희생자로 평가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률적 해석대로 할 것인가. 한나라의 건국 과정과 나라 지키기에는 그만큼 이념적, 철학적, 법률적, 그리고 물리적 길항(拮抗), 깊은 갈등들이 꼬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서 아직 건설 중에 있는 나라, 나라 만들기 과정의 나라이지 완성된 나라가 아니다. 주권독립이나 자립, 자족이 끝나고 과거에, 미래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경제 제일주의, 이념 지상주의, 반공 우선주의, 복지 제일주의, 민주주의 제일주의, 평등 지상주의, 환경 지상주의, 교육 제일주의 등 자기이익, 자기경험, 자기영역, 패거리 이기주의에 매몰된 역사 해석과 단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체제를 지킨다고 새 시대, 새 세상을 만든다고 독선의 목소리를 높여 떠드는 것이 실은 아직은 허약한 건설도중의 대한민국체제를 더욱 허약하게 몰고 가는 것이다. 지난날의 깊은 퇴적과 앞날의 넓은 도전을 겸허히 그리고 깊이깊이 통찰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아버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요, 나에겐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준 간접 은인인 윤종호 인민위원장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꾸로 남한에 남았다. 3년 전에야 이 믿기지 않을 진실을 들었다. 우리는 6·25에 남쪽에서 북으로 간 사람, 끌려간 사람, 또는 흥남부두 난민 철수나 폭격 맞은 대동강 철교를 넘어 남쪽으로 온 이야기는 많이 듣고 영화로도 본다. 그러나 6·25에 북에서 통치자로 남쪽에 왔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반(反) 김일성, 반(反)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윤종호 위원장 이야기를 고향 사람들 모임에서 했다. 마침 윤 위원장이 큰집의 둘째이고, 셋째 집안의 후손인 윤 위원장의 조카로부터 상상하기 불가능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평양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안성에서 멀리 대구에 터를 잡고 장(張) 씨로 변성명해 살다가 생을 마감했고, 살아서 두 번 뵈었다는 것이다. 원부인의 따님 두 분도 모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한 분은 미국 호놀룰루에 사셨다고 했다. 필경 그는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이상주의자였을 것이다. 혹독한 전쟁과

이념 체제 갈등을 넘어 사람, 보통사람의 마음속 깊은 밑바닥 본바탕에 깔린 사람다움, 그것이 사랑일지 자비일지 인의일지 어떤 것일지 모르나, 그런 도덕성의 전진이 인류의 진보를 믿게 하는 원천이 아닐까.

김일성에 사기·배반당한 사회주의 이상의 좌절, 그리고 그 회한을 안고 남쪽에서 숨어 산 윤종호 인민위원장도 대한민국 지키기에 한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진실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6·25라는 국난을 통하여 나라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깊이깊이 배운다. 또한 적 진영에서도 '보통사람'이면 할아버지의 일꾼이나 윤종호 인민위원장 같은 휴머니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인간 드라마의 오묘함에 놀라게 된다. 하느님이 계신 것인가.

Ⅲ. 1944년 - 하나다(華田)선생의 '독립'수업

스승이 사라진 세상이다. 요사이 신문을 보면 벌써 30여 년 전 일본 청소년을 가르켜 '신인류'라고 했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심지어 스승에게까지도 심심치 않다고 한다. 근대사회의 역(逆)발전 현상의 하나인 가정와해·사회해체 현상을 실감한다. 살다 보면 나를 형성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고, 결정적인 말이 있다. 그 말이 스승의 말이면 인격형성, 한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 일생동안 떼어놓을 수 없는 거울이 된다.

나에게 국가, 민족, 애국, 독립이란 말과 의미를 너무나 충격적으로 가르쳐 준 선생님이 있다. 안성공립국민학교(요사이 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 하나다(華田) 선생님이다. 1944년에 대동아전쟁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학교는 수업터라기 보다 소년·소녀 노동대였다. 어떤 날은 아침에 등교하여 출석 점호를 마치면 곧장 10리, 20리 산으로 가서 하루 종일 송진을 캐다. 기름이 모자라 우리가 캔 소나무 송진을 선박 연료로 쓴다고 했다. 운동장은 사람이 다니는 길만 남기고 몽땅 밭이 되어 콩, 채소 등을 키우고, 모든 반(班)마다 토끼를 키워서 돌아가며 당번이 된 학생은 등교하면 제일 먼저 토끼장에 풀을 넣어야 했다. 당번 차례 전날은 학교 후 냇을 들고 논두렁, 밭두렁으로 풀을 베러 다녔다. 중학선배들은 수원으로 비행장건설 노동을 하러 다녔다. 아침마다 일본인 교장이 조회 훈시를 하고 나면 동쪽 도쿄 천황신궁(天皇神宮)을 향하여 세번 절하던 시절이었다. 이름은 '김진현'이 아니라 '가네시로진켄'으로 바뀌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은 물론 친구끼리 노는 시간에도 우리말을 하면 '딱지'를 뺏겼다. 일정한 수(20장이었던 듯)의 딱지를 다 뺏기면 진급조차 못 하게 하는 상호고발 시스템까지 작동시키며, 우리 말을 금지 하던 시절이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짓들이 나라가

없는 설움이라는 의미와 맥락을 깨우쳐 준 것은 그 가혹한 감시 속에서도 용감했던 하나다라는 여자 선생님이었다.

그 1944년 늦여름, 초가을 어느 날 오후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유리창 커튼(그때는 야간 공습에 대비하여 모든 교실 창문에 커튼이 있었다)을 모두 내리라고 했다. 교실이 어두컴컴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지금 이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정부가 따로 있다. 우리 국기는 일장기가 아니다. 태극기가 있다. 우리 글도 따로 있다. 한글이 있다.” 그러면서 칠판에다 태극기를 그리고 큰 글씨로 ‘가갸거겨 ...’ 한글을 썼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생님 말씀은 다른 반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학교 3학년짜리 50명의 어린이들에게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 수업이 끝나고도 어안이 병병했다. 그리고 소화할 수 없는 그 ‘진실’의 언어는 어린이의 놀이와 더욱 옥죄는 학교생활의 일상에 묻혀 버렸다. 꺼낼 수 있는 의식의 심층보다 너무 깊었다. 그리고 일년이 채 안되어 4학년 여름방학 중에 8.15를 맞았다.

8.15 폭발은 그 깊이 묻혔던 의식을 살렸다. 불현듯 하나다 선생님의 말씀이 전광석화처럼 떠올랐다. 진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정말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었구나. 태극기가 있고 한글이 있었구나.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경험만이 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온통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는 것, 그런 현상조차도 진실이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다. 나라, 민족, 국기, 언어, 글씨의 의미를 처음으로 체화시킨 것이다. 체화시킨 것은 철학이나 종교의 더 고상한 배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다 선생님의 커튼 속 속삭임의 말과 8.15였다. 감성적 감격인 동시에 마음, 인격도야의 결정적 모멘텀이었다. 나를, 나의 생각을, 의식을,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높인 것이다.

내가 1990년 과학기술처장관이 된 다음 3학년3반 동창들이 모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감격을 주신 하나다 선생님을 찾기로 했다. 그때 우리 50명 코흘리개들도 선생님의 당부를 지켜 부모님께도 다른 반 아이들에게도 비밀을 지켜 하나다 선생님이 무사히 해방을 맞게 한 우리들의 자부심까지 회고하며. 하나다 선생님의 이름과 방학 때 선생님 댁을 방문했던 동창의 기억으로 천안 병천(並川) 지명을 주고 내무부장관에게 신원확인을 부탁했다. 이틀만에 답신이 왔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남편과 함께 살고계시다는 것이다. 바로 연락하여 선생님을 서울에서 모실 수 있었다. 45년 만의 만남이었다. 하나다 선생님의 본 이름은 홍진기였고, 진명여중 3년을 마치고 2개월 코스의 초등교육 교사 수련(남자들은 전쟁터로 가고

선생이 모자라 단기 연수로 선생 보충)을 거쳐, 첫 부임한 것이 1944년의 우리 반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 17세 언저리, 학생들보다 5~6세 위의 어린 여자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까닭이, 연원이 있었다. 홍 선생님 댁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동네인 '아우내'였다.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들고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를 부른 그 동네였다. 1919년 3·1운동—유관순—홍진기—1944년의 안성공립국민학교 3학년3반의 코흘리개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랄까. 나에게는 해방—건국—독립—대한민국—한민족이라는 의식의 연대를 굳혀준 것이다. 역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씨앗이 있고 연기(緣起)가 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높고 깊은 진실에 즉하여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은 스승을 둔 학생의 복이었다. 스승이 사라진 대한민국은 그 이외 모든 것이 성공했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상처를 깊게 안고 있는 것이다.

IV. 21세기 지구촌 대한민국의 정체성 세우기 — '대한민국(韓人) 민족주의'

일본 도쿄대학의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郎) 명예교수는 '실패기억의 법칙성'을 제기했다. "개인은 3년, 조직은 30년, 지역은 60년으로 망각한다. 역사적 사례는 300년이면 사회에서 사라지고, 1200년이 되면 일어난 일 자체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 인간에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않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에겐 잘못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습성이 있다." (일본경제신문 2011.5.30)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때 해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난 것은 자연과 원자력이라고 하는 본디 제어되지 않는 대상을 '완전히 제어된다'고 인간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은 3년, 30년, 60년, 300년, 1200년 길이의 과거, 그리고 같은 길이의 미래를 함께 통찰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성취를 기록했다. 그 어떤 기준으로 재도 근대화의 외형적 모양, 통계수치로는 선진국들의 선진화 과정은 물론이고, 1945년 이후 독립한 140여 개 제3세계 국가들과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다. 정치민주주의, 시민·언론의 자유, 근대경제 성장, 산업구조 심화, 경제개방, 인구·도시화 변화, 교육문화 고도화, 외래종교 수용과 한국인의 대외진출 등 그 속도와 범위, 압축성장, 목표지향, 모방추월에서 인류 역사상 특이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이한 성공에 대칭되는 가정파괴, 사회해체, 갈등·분규공화국,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최선진국, 공짜 민주주

의의 횡행, 그리고 한 사람의 대통령도 인생으로서나 치적으로나 행복한 결말, 합치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군(問題群) 국가—21세기 인류 지구촌 문제군의 중심, 진앙지가 되었다. 그리고 유사 이래 이 나라, 이 민족을 짓눌렀던 2개의 숙명이랄까, 운명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하나는 반도 지정학이다. 1592년, 1636년, 1894~1910년, 1945~1950년의 지정학은 2019년에도 변화가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종합 국력에서 세계 1, 2, 3, 4위의 2대 해양국가와 2대 대륙국가 사이에 낀 이 지구상 유일한 나라이며, 일본을 사실상 준핵무장 국가로 본다면 한국은 4대 핵국가에다 더하여 북한의 핵까지 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 핵국가에 완전히 포위된 유일한 비핵국가 되었다. 비핵대국 독일은 이웃 핵 국가로는 서쪽 프랑스뿐이고, 우리와 비슷한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스위스도 서쪽의 프랑스뿐이다. 이스라엘은 아예 북한처럼 핵무장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랍에 섬처럼 둘러 쌓여 있다 해도 미국과의 특수관계까지 고려하면 힘의 우위는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 있다.

대한민국이 만일 중앙아시아에 위치했다면 5,200만 명 인구와 3만달러 1인당 소득으로 명실공히 대한'제국'(大韓'帝國') 노릇을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1,500만 명, 770\$), 우즈베키스탄(2,900만 명, 2,100\$), 타지크스탄(790만 명, 950\$), 투르크메니스탄(510만 명, 750\$), 기르기스탄(550만 명, 1,200\$)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동부 아프리카의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옆으로 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의 동남아시아로 옮길 수 있다면, 지금 수준으로도 큰 소리치고 제국(帝國)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는 그런 변방 후진국가들이 아니다. 세계 정치, 군사, 경제, 통상, 환경의 표준과 규칙을 결정하는 최강대국들이다. 현재의 국력, 현재의 시민, 현재의 리더십, 현재의 협치(governance)의 틀로는 이들과 겨루기는 어림도 없다.

더구나 둘째 번 숙명은 국가 대사 특히 외침이 있을 적마다 반복된 적전분열이다. 임진란때 황윤길X김성일, 병자호란때 주전론(主戰論)X주화론(主和論), 한말의 개화파X척사파, 해방 후 6.25까지 부른 좌X우의 대립 등 적전분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오늘 2019년은 어떤가? 3.1운동 100주년, 백범 김구 가고 70년, 이승만 대통령 가고 54년, 박정희 대통령 가고 40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간 지 10년 언저리에 적전분열은 더 악화되었다.

우리는 근대의 민족국가, 시민국가 개념으로도 미완성의 나라이다. 그런데 한민족 특유의 단일민족 '신화'로 해서 민족과 국가는 하나인 듯 착각이 너무 깊다. 민족은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주권만 찾으려 하면, 그리고 영토만 있으면, 국가도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유럽은 1648년 베스트팔렌(Westphalian) 조약 이후 300년에 걸친 세속국가끼리의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유럽의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조(李朝) 이래 한번도 우리의 의지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 침략당한 설움만으로는 독립의 정당성, 주권의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적극적 자강력의 축적, 결연한 자립의지의 결단과 실적으로만 근대 주권국가는 가능한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주권국가로서의 기본경험 축적이 모자라는, 즉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의 미완(未完)의 나라인 것이다.

나라로서는 미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량이 배출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적자원, 특히 지구촌 밖으로 뻗은 대한민국인(韓人)의 역량 축적은 경이롭다.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해사기구(IMO), 세계보건기구(WHO) 수장들을 모두 배출했다. 중국, 일본도 하지 못한 행운이기도 하고 역량이기도 하다. 자유가 없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버려진 고아들까지도 성공했다. 프랑스에서 2명의 장관과 국회의원들, 독일에서 녹색당수. 세계적인 혁신기업가인 일본의 손정의와 야나이 다다시(유니클로 창업자), 미국에서도 하원의원과 정부 차관급 요직까지 두루 포진했다. 자유가 있는 곳이면 보통사람들도 밖으로 뻗어 큰 성공들을 거두었다. 1500만 명의 한국 크리스찬들이 3억 넘는 미국의 크리스찬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해외선교사 파견국이 되었다. 음악과 무용과 일부 스포츠에서 선진국 무대를 휘어잡고 있다. 거기에다 근대 개화 이후 쌓인 비극의 씨앗들. 2차 대전에 동남아시아로 버려졌던 슬픈 연꽃 여인들인 위안부, 사실상 농노로 팔려가 하와이, 쿠바, 멕시코로 흩어진 한말의 이민, 196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로의 농업 이민과 아프리카 파견의사, 독일 광부와 간호사의 잔영,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에 남아 있는 근대 비극의 퇴적층 한인 교포들, 그리고 국내에 이미 300만 명이나 쌓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이민 이주, 다문화 가정.

21세기 한민족의 중심 터전이요, 기축인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만이 민족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으로 지평이 넓어지고 다양한 성격의 민족문제를 수렴, 통합, 승화해야 할 책임이 새로 생겼다. '21세기 지구촌시대 대한민국 민족주의' 정립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21세기에 무슨 민족주의냐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제일주의, 문화연예지상주의에 함몰된 이들이나 원형으로서의 마르크시스트들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지구적 차원의 질서와 규범은 경제, 문화, 과학의 영역에 까지도 UN상임이사국과 힘있는 이해당사국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로 결정된다. 시민·사회단체나 초국적 기업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224년 전 임마누엘 칸트가 꿈꿨던 영원한 평화, 세계공화국(World Republic)이 생기기 전까지, 즉 UN이 세계정부가 될 때 까지는 그럴 것이다. 나는 그런 날이 온다고 믿는다. 마치 UN이 1차,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교훈으로 나왔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을 포함한 3차 대전을 겪거나 기후 온난화 등 3차 대전에 못지않은 대재앙을 겪고 나면 확실히 세계정부의 이상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때까지 버티고, 그리고 그 이상을 앞장서서 만드는 선구자가 되어야만 국가의 생존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21세기 지구촌 시대 대한민국 민족주의를 꼭 세워야 한다.

유관순 열사의 분신인 홍진기 선생님도 미국에서 생의 후반을 지냈다. 40년 전 황 양도, 동막골 일꾼이나, 윤종호 위원장이나, 그리고 제헌의원이던 아버지나, 국무위원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위원장을 지낸 내가 한 일들, 이 모두의 축적이 나라다운 나라로 완성되기도 전에, 정리가 끝나기도 전에 지구촌시대의 대한민국과 한민족 정체성 찾기라는 명제 앞에 서게 되었다.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도 쉽게 답하기 어렵고, 지금 선진대국들도 안팎으로 반(反)지구촌화로 쪼개져가는 세상에서 더욱 망연하고 엄숙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구각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항일독립운동에서 해외파와 국내파, 임시정부와 외교파 간의 정통성 싸움, 이권단체화되어가는 일부 열사, 지사,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추태들, 그리고 마치 대한민국 정체성은 오로지 민주화운동에만 있는 듯 개념화하거나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같이 들고 데모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독선들, 반미 친북만이 한국 민족주의의 정통인 듯 소리치는 반(反)자유주의 반동들은 제발 낡은 아집과 독선들을 버리고 진실의 태양 아래에 모이자. 과거를 승화시켜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인류의 미래의 새 길을 앞장서 개척하자. 언제나 역사의 중심은 그 땅, 그 자리, 그 수모를 견뎌 낸 보통 백성의 '인간성'이 버텨준 것이다. 이들을 국내에서 폭넓게 포섭하고, 해외에 뻗은 근대, 그리고 포스트모던시대, 지구촌시대에 한인의 능력을 융합하고 승화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꼭 성취해야 할 한국 역사와 세계 역사의 새 실험, '21세기 대한민국(韓人) 민족주의 세우기'이다.

어쩌면 근대국가 만들기에 미완성이었기에 역설적으로 지구촌 새 실험에서 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제3세계는 세계문제군에 미숙하고, 선진국들은 근대 국가, 시민주권국가의 원형에 너무 고착되어 새 도전, 새 실험에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사람으로 충실하고, 자신을 타인화하고 타인을 자기화하는 경험에 겸허하고, 진실을 외경하고,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십의 대한민국 민족주의를 세우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새 시대, 새 문명,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중심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질곡했던 역사의 두 숙명을 걷어낼 것이다.

필자정보

現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과학기술처장관, 서울시립대총장, 동아일보논설주간, 문화일보회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장, 이봉창기념사업회회장, 세계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와 2인)공동위원장, 대통령자문국민원로회의의위원

고려대학교 명예 경제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Nieman Fellow 과정수료

저서 : 『일본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한인, 삶의 조건과 미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공저), 『해양 21 세기』(공저) 등